3

2021년도 북한 군사력·군사전략 변화 평가 및 전망

가. 8차 당 대회를 통한 군사분야 변화와 국방력 강화 성과 부각

■ 제8차 당 대회 이후 군사분야 변화 모색의 특징과 의의

○ 김정은 통치 10년 동안 추진해 온 '탈군사화'를 위한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의 노력을 마무리하며 김정은식 통치방식의 안착을 통해 정권 2기 안정적 운영의 일대 전환점 모색

- 1962년 병진노선이 발표된 이후 오랜 기간 국가와 사회 전반을 지배해 온 군사우선주의 폐단에서 벗어나 경제발전 중심의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실질적 전환
- 군사 관련 당규약 변화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당을 통한 군 통제가 보다 간명해지고 강해졌다는 점에서 군의 역할 및 위상 변화 식별

○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강조는 과거 병진노선으로 단순 회귀가 아니라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통한 안보우려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상적인 병진노선 2.0으로 진화

- 지금까지 정권생존적 차원에서 인민경제를 희생하고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군사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온 것은 "가짜 병진노선"

- 국가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방위력 강화에도 재원을 충분히 배분하겠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가 경제발전과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과 같은 "진짜 병진노선"으로 변화
- 과거 병진노선의 시대로의 회귀가 아닌 경제 중심의 인민대중제 일주의정치하에서 군사력은 군사전략 차원에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국가 생존과 발전 전략 차원에서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

■ 경제발전 5개년전략 실패를 국방력 분야 성과 집중 부각으로 만회

○ 지난 7차 당 대회 총결 기간(2016~2020년) 이룩된 성과로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부각

- 2016년 노동당 7차대회 이후 《화성포》계렬의 중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들과 《북극성》계렬의 수중 및 지상발사탄도로케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 초대형수소탄개발 완성에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 시험발사로 국가핵무력 건설 완성을 가장 큰 성과로 자평
-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 공개한 11축 발사차량에 실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더 위력한 핵탄두와 탄두조종능력이 향상된 전지구권타격로케트' 개발이라고 언급
- 국방과학부문에서 초대형방사포, 신형전술로켓, 중장거리순항미사일 등 새로운 첨단핵전술무기와 신형탱크, 반항공로케트종합체, 자행평곡사포, 반장갑무기 등 신형 무기 개발 성과를 크게 부각
- 다탄두개별유도기술과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연구를 마무리하고 시험준비 중이며, 중형잠수함무장현대화를 위한 시범

개조(로미오급) 및 핵잠수함설계연구의 최종심사단계, 각종 전자무기들, 무인타격장비들과 정찰탐지수단들, 군사정찰위성설계 완성 등 진행 중인 국방과학연구부문 공개

○ 국가방위력 강화와 국방공업 발전 성과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것은 대내적 메시지 전달 의도가 우선
- 당국가가 당 대회를 통해 인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 두 부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번 군사분야 성과를 부각한 것은 지난 7차대회 총결 기간 경제성과의 미흡을 군사분야 성과로 보충하려는 의도도 내포

나. 2021년 군사 분야 주요 동향

■ 제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 과업(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제시

○ 8차 당 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해 나갈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
- 전술핵무기 개발 및 초대형핵탄두생산, 1만 5,000㎞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로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 등 핵기술 고도화와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 제시
-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 고체연료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핵탄두 SLBM 개발 등을 주요 과업으로 상정
- 군사정찰위성 운영을 통해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확보하고 500km 정밀정찰 가능한 무인정찰기 등 정찰 수단 개발연구사업 본격 추

진 언급

- 제8차 대회 군사부문, 군수공업부문협의회와 김정은의 결론에서도 국가방위력 강화를 재차 강조

○ 국가방위력 강화 계획 공개는 대남·대외관계와 함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추진과도 연계

- 통상 초기 계획단계의 군사무기 개발은 비밀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상세하게 공개 강조한 것은 대미/대남 압박 차원의 대외적 메시지와 대내 결속을 위한 이중적 의도를 내포
- 당규약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평화적 안정과 통일 언급하며 정당화

  * 당규약 전문의 대남통일부분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였다"며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으로 된다"고 수정

- 군사분야 계획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함께 9차 당 대회(2025년 예상)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내세울 안보와 경제의 두 가지 분야의 성과 차원에서 제재, 코로나 등 대내외적 환경 고려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

■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공세적 추진

○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1차년도인 2021년 국방력 강화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기술적 준비상태 고려 계획대로 진행

- 올해 북의 무기 시험발사 유형을 보면 지난해 10월과 올 1월 열병식에 공개한 무기모형(mock-up)의 시험발사를 집중적으로 진행

- 시험발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은 아직 개발 중인 미완성 무기라는 점에서 완성 시 참관이 예상되며, 이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기와 달리 단위별 임무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김정은식 시스템 통치방식을 통한 국가운영으로 부담은 덜면서도 통치권한은 강화

○ 1월 22일 평북 구성, 3월 21일 평남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 북한의 공식적인 보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사거리, 고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고만 발표
- 제8차 당 대회에서 언급한 중장거리순항미사일 또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가지고 나왔던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KN-27) 시험발사 가능성
- 북한이 미보도했다는 점에서 실패 가능성과 함께 실제 공개적인 시험발사를 앞두고 사전 연습 발사를 실시했을 가능성

○ 3월 25일 함남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전술유도탄 2발 시험발사
- 북한은 리병철 비서가 주관한 국방과학원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로 탄두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고 밝혀 제8차 당 대회 열병식(1.14)에 최초 식별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개량형(KN-30)으로 추정
- 북한이 신형의 탄두 중량을 2.5톤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현무4(탄두 2톤, 사거리 800km)을 의식한 점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난 8차 당 대회에서 언급한 전술핵 개발과 연관된 위협적인 무기체계로 평가

-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 있는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 역시 재확증하였다"며 북한 미사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제 무력화를 암시

  * 북한이 밝힌 비행거리 600km와 우리 군의 발표 450km와 차이 발생

○ 2021년 9월 11일과 12일 국방과학원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치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해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
-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중점 목표 달성에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사업의 일환
- 저고도 비행 및 정밀타격이 가능하고 현재까지 핵탄두 탑재는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북이 핵탄두의 경량화와 소형화를 지속해 나갈 경우 현재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체제로는 방어가 어려운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

○ 9월 15일 철도기동 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

- 기차를 이용해 전술유도탄(KN-23) 2발 발사, 이동발사수단 다양화로 생존성과 동시다발적인 집중타격능력을 높여 미사일방어체계 무력화 의도
- 시험사격이 아니라 검열사격훈련이라고 한점에서 KN-23은 개발단계가 아니라 실전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새롭게 조직된 철도기동미싸일련대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진행

○ 9월 28일 국방과학원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1발 시험발사
- 8차 당 대회 때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이라고 한점에서 극초음속순항미사일(Hypersonic Cruise Missile ,HCM)이 아니라 기존 액체연료 엔진 탄도미사일에 기반한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 HGV)
- 액체연료 앰플화를 통해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이며 보관하여 노동미사일(화성7)과 SCUD-ER(화성 9) 고려 시 사거리 1,000km 내외의 미사일 탄두부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적용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

○ 9월 30일 국방과학원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 지난해 당창건 75주년 열병식과 올해 1월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 공개한 신형 대공미사일 체계의 시험발사
- 2016년 발사 장면을 공개한 대공미사일(번개-5호)과 달리 소위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는 중장거리 대공방어시스템인 S-400과 유사해 최대 사거리 400km, 최대 탐지거리 700km, 최고 속도 마하 12로 항공기는 물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
-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탐지 및 요격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과거 북이 우리의 F-35 전투기 도입에 대해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10월 19일 국방과학원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
- 신포 일대 동해상에서 고래급(신포급) 잠수함(8.24 영웅함)을 이용 전술유도탄(KN-23)을 기반으로 한 신형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북극성 계열과는 다른 전술유도탄(KN-23)과 동일 형상의 소형 SLBM 공개

- 이미 실전 배치한 지상 발사 전술유도탄(KN-23)을 수중발사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며 개조한 로미오급 잠수함에 탑재하여 북극성 계열보다 먼저 실전배치 될 가능성에 유의
- 전술유도탄(KN-23)의 발사가 차량과 기차에 이어 잠수함까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발사 위치와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한반도 전역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 내에서 전술적 차원의 재래식 거부적 억지력을 극대화

발사일	발사장소 (탄착점)	발사체	거리	비고
1.22	평북 구성 (서해상)	순항미사일 2발 *신형지대함(KN-27) 또는 지대지	미확인	북한 미보도
3.21	평남 온천 (서해상)	순항미사일 2발 *신형지대함(KN-27) 또는 지대지	미확인	북한 미보도
3.25	함남 함주 (동해상)	KN-23 개량형(KN-30) 2발 *탄두 중량 2.5톤	600km	제8차 당 대회 열병식 최초식별
9.11 9.12	위치 미상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7,580초)	1,500km	
9.15	평남 양덕 (동해상)	전술유도탄(KN-23) 2발 기차 발사 *철도기동미사일연대	800km	
9.28	자강도 (동쪽)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1발 *액체연료 앰플화	미확인	국방발전전람회 전시 식별
9.30	위치 미상	신형 반항공미사일 *스텔스 탐지 및 요격 능력	미확인	제8차 당 대회 열병식 최초식별
10.19	신포 (동해상)	신형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탄 *고래급 잠수함 발사	690km	국방발전전람회 최초 식별

■ 국방력 강화 집중의 의도 및 영향 평가

○ 북한의 신무기 지속 개발을 대남 대미 위협 및 대북정책 변화를 위한 압박 차원으로 설명하기는 한계

- 2021년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주로 단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이 추가제재에 대한 우려나 북미대화 가능성과 남북관계에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리병철 비서 담화(3.26)에서 "누구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것이 아니다"라며 북·미 대화나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함.

- 리병철 비서 담화(3.26), 조선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3.28) 그리고 3월 30일 김여정 부부장의 추가 담화 모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정당화하고 미국과 남한, 유엔을 비난한 것은 방어적이라기보다 경제에 매진하기 위한 공세적 외교(자주)와 국가방위력 강화(자위)의 일환으로 해석

- 북한은 대북제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 형성을 좌시하지 않고 상대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이념과 가치를 강조하며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미 국제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의도

○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성과 차원에서 추진

- 공개적인 신무기 개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응 및 북·미 대화 압박이나 남한의 대미 설득 역할을 강요, 남북관계 제고 등 대외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지만, 기

술적인 완성도를 바탕으로 무기체계 개발 일정에 맞추어 추진

- 제8차 당 대회에서 밝힌 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함께 국방과학발전 5개년계획을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대내적으로 안보적 우려 해소와 군심, 민심 결집을 위한 대내적 의도에 무게
- 9월 9일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과 10월엔 당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국방발전전람회 '자위 - 2021'을 개최하여 코로나와 제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적 성과의 부족을 군사적 성과로 대체하기 위해서 군사적 분야에 있어 첫해 성과를 극대화 노력

○ 국가방위력 강화의 원인을 미국과 남한에게 돌리며 국방력 강화 지속 추진의 명분과 정당성 마련

- 우리의 군비현대화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비난하면서 자위적인 국방력발전 권리라고 주장
  * 김정은은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을 통해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이 아니다"라며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언급
- 조선반도지역 정세불안정의 근원을 미국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지역 내 군사적 균형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군축협상 제기 가능성

다. 2022년 군사 분야 전망 및 정책 제언

■ 북한의 2년차 '국가방위력 강화' 추진 전망

○ 5개년계획의 2년 차에 경제에 집중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방위력 강화 행동 병행 지속
- 2022년에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염두에 두거나 남측의 대선 등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해 '군사적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
-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향후 5년간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해 경제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안심시키고 군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자위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핵무력 강화와 함께 선택적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 사업을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지난 8차 당 대회에 제시한 국방 관련 과업 중 2021년도에 이행하지 못한 것을 2022년도에 우선 실행할 가능성이 큼
- 통상 5개년계획의 실질적인 성과는 2차 연도에 진행하고 많은 결과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국방력 강화 역시 2022년 성과가 중요
- 2021년에는 주로 단거리전술무기 개발에 집중했다면 2022년엔 수중 및 지상 고체 ICBM 개발사업, 핵잠수함 및 핵 SLBM 보유, 15,000km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를 통해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 등 전략무기 개발에 무게를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제기한 새로운 무기 대부분이 개발 초기 단계로 개발 및 완성에는 상당 시간과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일한 목적

을 가진 무기들이 중복되어 있어 좀 더 단순화되고 나머지 병력과 자원은 경제분야로 돌릴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4월 북한의 중요한 정치 일정을 전후해 군사적으로 남북관계에 중요한 분수령 예상

-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과는 반대로 종전선언 이슈에도 불구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임.
- 2022년 3월 이번 정부가 대선 전 한·미 동맹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등을 이유로 내세워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를 빌미로 쌍중단(핵실험/ICBM 발사 중단과 연합훈련의 중단)을 미국이 먼저 지키지 않고 파기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공위성(장거리로켓)이나 북극성 계열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신형 ICBM 지상 연소실험과 제한된 사거리 발사 가능성
- 특히 우리의 대선과 신정부 출범 전후 공백기에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는 유지하면서 이와 구분하여 신형 잠수함 진수 및 SLBM 발사 등 관련 징후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실제 새롭게 건조된 신형잠수함(3000톤급)에서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리병철 비서는 담화에서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미국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권리”를 언급해 단순히 단거리 전술유도탄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LBM과 ICBM의 시험발사도 할 수 있음을 밝힘.

- 북한은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면서 이전 2월 16일은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80주년, 4월 11일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 4월 13일이 제1국방위원장 추대 10주년으로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가 예상되며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두드러진 가시적 성과가 필요함.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2022년 5월 예정된 누리호 재발사와 연결 가능

■ 남북관계 위기 가능성과 군비통제적 해소 노력

○ 북한은 현 남북관계 위기의 원인을 군사적 문제와 남북합의 미이행으로 규정하고 접근

- 남한이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끌려 하고 있다고 지적
-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요구를 외면하고 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면서 남한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에 대해 대통령 발언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이중기준을 문제시함.
-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교류협력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 그리고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파기와 관련 북측의 대남 조치는 남북 상호 간 군비경쟁 하 군사적 행동을 빌미로 '국지적 행동'으로 발현될 가능성 있음.
-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한 군사분야에서 선제적 조치 필요하며 제재와도 무관한 남북합의 사항의 선제적 이행이 선행

○ 북·미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려는 입장은 불변

-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

회하는데 있다"고 하면서도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 이 문장으로 바이든 정부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표출함.

- 중·러 등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다변화하면서 보편적 국제사회 규범(국제적 정의)에 맞는 국가의 대외관계 확장을 통해 미국과 제재와의 장기 대결을 준비

○ 북한의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등 핵무력의 질량적 증가로 인한 향후 비핵화 협상의 복잡성 증가와 제한적 핵보유국 전략하 핵군축 협상 주장 가능성 증가

- 북한은 현재는 물론 미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핵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조건부 핵무기보유국 전략' 구사 가능성
- 남북관계 진전은 경제적 접근, 평화경제가 아니라 군사안보적 접근과 평화안보의 개념이 필요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군비통제적 접근 요구

〈참고 1〉 8차 당 대회에서 언급한 지난 5년간 국방분야 총화 내용 종합

구분	성과분야		진행 상황 확인
핵무력 현대화 지향 새로운 핵능력 확보	'화성포' 계열 중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2017. 5/8/9월 화성 12형 발사 2017. 7월 화성 14형 발사 2017.11.29. 화성 15형 발사
	'북극성' 계열 수중·지상 탄도미사일		2016.8.24. 북극성-1형 발사(고래급잠수함) 2017. 2.12 북극성-2형 발사 2019.10.2. 북극성-3형 발사(수중사출장비) 2020.10.10. 북극성-4형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핵무기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		2016.1.6. 4차 핵실험 2016.9.9. 5차 핵실험
	초대형수소탄 개발		2017.9.3. 6차 핵실험
	신형 ICBM		2020.10.10.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공개 *2021.10 국방발전전람회 전시(화성 17형)
국방과학부문 첨단무기체계 연속개발 완성	첨단 핵전술무기	초대형 방사포	초대형방사포(KN-25) 개발 완성 *발사관 4,5,6개 탑재 차륜형과 궤도형 공개
		신형전술로케트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양산 및 실전배치 KN-24(북한판 에이태킴스) 완성단계 추정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2021. 9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우리(北)식 주력탱크		2020.10.10.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신형전차 최초 식별, 기존 선군형 전차 개량 추정(7축) *개발방향 수립, 생산공정 일신
	반항공로케트 종합체		2020.10.10.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공개 2021. 10.1 신형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자행평곡사포		2018.9.9. 북 정권 70주년 열병식 공개 (155mm 신형자주포)
	반장갑무기들		2018.9.9. 정권 70주년 열병식 공개 (대전차미사일 탑재 장갑차) 2020.10.10.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공개 (열압탄 또는 대전차미사일 탑재 장갑차)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완성을 위한 연구사업 마감단계 진행 주장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연구 종료 및 시험제작 준비 * 2021.9.28.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발사

구분	성과분야	진행 상황 확인
	중잠수함 무장 현대화	2019.7.23. 개조 로미오급잠수함 김정은 시찰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 종료, 최종심사단계 주장
	* 전자무기, 무인타격장비, 정찰탐지수단, 군사정찰위성설계 완성 주장	

〈참고 2〉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향후 5년간 국방력 발전 과업 진행 현황

과업내용	진행 상황 확인
전술핵무기 개발로 목적과 대상별 다른 수단 적용	2021.3.25. 신형전술유도탄(KN-30) 시험발사 *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 공개 2021.9.15. 철도 이용 전술유도탄 발사 2021.10.19.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추가 진행사항 미확인 * 영변 핵시설 및 우라늄농축 시설 가동중 핵탄두의 양적 증가 지속 예측
15,000km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	2021.10.11. 국방발전전람회 전시(화성 17형) * 실제 시험발사 미진행
극초음속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2021.9.28.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발사
수증 및 지상 고체 ICBM 개발사업 계획대로 추진	2021.1.14. 제8차 당 대회 기념열병식 공개 2021.10 국방발전전람회 전시 * 실제 시험발사는 현재까지 미진행
핵잠수함 및 핵 SLBM 보유	추가 진행사항 미확인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통해 정찰정보수집능력 확보	추가 진행사항 미확인
500km 전방 정밀정찰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추가 진행사항 미확인